

###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7(土)	18(日)
구름 조금 12/25℃	흐려져 비 14/25℃

#### News

- 문화전당 6월 10일 기공 ②
- 5·18모지 영정 없는 5인 ③
- KIA 리마·발데스 화생 ⑧

#### Books

- 서울, 시공간 탐사 보고서 ⑭

#### Entertainment



- 손예진·문근영 TV 컴백 ⑧
- 영화, 시리즈 강자들 귀환 ⑨

#### Wellbeing

- 식품 탐구 - 봉어 ⑬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5·18 3세대의 성모 5·18 민중항쟁 28주년을 앞둔 16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한 희생자의 손자가 묘비 앞에 꽃한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5·18 민주묘지 관리사무소는 784기의 묘비 앞에 태극기를 달았다. /위권일기자 jrwi@kwangju.co.kr

## 5·18 행사 정치 변질 안된다

### ‘쇠고기 정국’ 속 노동자대회·한총련 출범식 열려 경비경찰 8천여 명 집결 ... 5월단체·시민들 우려

5·18 민중항쟁 28주년 기념일이 이를 앞두고 다가온 가운데 기념식을 전후로 외지단체의 각종 시위·집회가 예정돼 있어 5·18 정신의 훼손과 정치적 변질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17일 민노총은 광주역 앞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고, 한총련은 17일~18일 조선대에서 전국 각 대학 대표 2천여 명이 참석하는 2008년 한총련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단체는 또 18일 이명박 대통령의 참석이 예정된 5·18 국립묘지에서의 기념식에 동시 참석할 예정이어서 자칫 이대통령 묘지참배 반대 시위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는 불상사 방지를 위해 속속 투입되는 경찰력으로 때 아닌 긴장감이 고조되고있다. 광주 지방경찰청은 16일 밤부터 광주에

전국의 노동자와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속속 광주로 모여들자 다른 지역의 경찰청으로부터 71개 중대 7천여명의 경찰을 지원받아 국립 5·18 민주묘지 인근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소속 8개 중대를 합하면 총 79개 중대, 8천여명의 경찰이 광주에 집결하는 셈이다. 공권력과 충돌 가능성이 큰 상황이

다.

여기에 5·18 행사준비위원회가 광주 병 파동·한반도 대운하·한미 FTA 등 민감한 사회 현안을 정면으로 지적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5월 선언문'이 예초 발표된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게 확정돼 우려를 키우고있다.

하지만, 5월 단체와 시민들은 5·18 기념식이 폭력·불법 시위로 변질하

### 시·도지사 교육감 호소문 “성숙한 모습 보이자”

광주·전남지역 시·도 단체장과 의회 의장, 교육감 등이 5·18민주화운동 28주년 기념일을 이틀 앞둔 16일 시·도민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강박원 시의회 의장, 안순일 시 교육감은 이날 “광주 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올해 제

2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서 5·18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한 마음으로 민주인권도시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 등은 이어 “5·18 기념행사가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드높이

지 않길 바라고 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5·18 기념식장에 진입하려다 대학생과 진보단체들의 기습시위에 막혀 곤욕을 치렀던 전례와 지난 2005년 5월15일 5·18 제25주년 기념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 배치 반대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돼 5·18 기념행사를 퇴색시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광주 유치 여부가 오는 31일 결정됨에 따라 광주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한다면 유치전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추모 열기 고조

### 5·18 28주년 ... 오늘 금남로서 전야제

5·18 민중항쟁 제28주년 기념일을 이틀 앞두고 광주·전남 곳곳에서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는 ‘제2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날 기념식은 3부 요인 등 정부 주요인사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유족·5·18 관련 단체 회원·학생·일반 국민 등 2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분향, 경과보고, 기념공연, 기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2시 금남로에서는 5월 정신 계승 국민대회와 시·도민 대동 한마당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5·18 민중항쟁 28주년 행사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국민대회에서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 반대 등 사회적 현안과 맞물린 ‘5월 선언’이 발표될 예정이다.

기념식에 앞서 17일 오전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탑에서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주관으로 ‘5·18 민주화운동 제28주년 기념 추모제 및 추모리본 달기’ 행사가 5월 단체 회원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

최된다.

또 이날 오후 3시~11시 금남로에서는 ‘다시 서는 금남로’라는 주제로 전야제 행사가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풍물패 길놀이·난장 행사·오월 마당극·햇불 행진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5·18 기념일을 이틀 앞둔 16일 광주시 북구 운동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강정채 전남대 총장과 김재근 18대 총선 당선자, 신계륜 전 의원을 비롯한 5천여명의 참배객 발길이 이어졌다.

또 광주시 서구 5·18 기념회관에서는 아시아 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광주 국제평화포럼’이 열렸고, 광주시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민들레 소극장에서 이날부터 극단 ‘토박이’가 5·18 민주화운동 28주년 기념공연으로 연극 ‘상중(喪中)’의 막을 올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한·미 쇠고기 협상 11일 전

### 주미대사 ‘전면개방’ 통보 의혹

#### 대사관측은 부인

한·미 쇠고기 협상이 개시되기 전인 지난 3월 말 이대식 주미대사가 미국의 네브래스카 주지사 등을 만나 우리 정부가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주미 한국대사관측은 이 같은 의혹을 즉각 부인했다.

15일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축산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소식지를 확인한 결과 미 축산협회는 “이 대사가 지난 3월31일 미국 네브래스카 등 축산업이 발달한 3개주를 방문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장개방의 돌파구가 열릴 것이

라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 대사가 네브래스카 주지사를 만난 것은 미국이 4월8일 우리 정부에 쇠고기 협상을 제의해오기 8일 전이며, 같은 달 11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열리기 11일 전이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다른 일부 국내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주미 대사관은 이 대사가 지난달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통과를 위한 설명회를 열고 데이브 하이네먼 주지사 등에게 협력을 요청한 바 있지만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길 기대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고 해명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승세기소라·세기보청기

1888-8426 / 062-222-8111

062-2530-9318